

추적, G20!

이명박은 왜 이렇게 G20에 목을 매나??



G20은 MB의 돌파구?

이명박에겐 올해가 지방선거 패배, 8·8개각 실패, 유명환 딸 특채 사건으로 참 되는 일이 없는 한해인듯 합니다. 8·15 광복절 때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던 이명박은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특채 파문 등으로 더 큰 망신을 당했죠. 레임덕에 봉착한 이명박은 마지막 갈자루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바로 G20이죠. 오는 11월 11일, 제 5차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하죠. 청와대는 G20 정상회담 유치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 준 이명박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세계가 평가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제2의 명박산성

그래서인지 이명박은 온갖 호들갑을 떨며 G20 정상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는 높이 2.2m의 방호벽 이른바 'G20용 명박산성'을 설치하고 있죠. 또 한나라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활용하면 G20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거나,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

심지어 G20을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단속도 강화하고 있어요. 경찰은 길거리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고 있죠. 세계각국의 정상들에게는 문호를 활짝 열고 온 국민이 환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 하는 것은 이중 잣대 아닌가요? 또 G20을 빌미로 노점상과 노숙인들도 단속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G20이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구?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 회의 개최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 "국격 상승"의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죠. 이명박은 런던 정상회의 때 한국의 IMF 극복 비결을 자랑스럽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IMF 당시 정부가 공적 자금을 1백60조원을 퍼부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해고 당하고 비정규직이 되고 파산자가 되었죠. 이명박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뇌리에 고통으로 각인된 IMF경험을 다른 나라도 배워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MB가 생각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랍니다. _ _

<충격!>G20에선 4대강 죽이기가 친환경 녹색투자?!!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G20에선 친환경 사업으로 둔갑한다는 사실 아세요? 기후변화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각국 정상들이 모인 G20은 황당하게도 '4대강 살리기'와 주변 정비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녹색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4대강 죽이기를 녹색투자로 둔갑시키기. 참~ 쉽죠~잉?

* G20에 맞선 행동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함께해요! >_</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규탄!

일시: 11월 7일(일)

장소: 서울광장

주최 주관: 민주노총

◆사람이 우선이다! Put People First!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일시: 11월 11일

* G20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함께 토론해요! ^^

◆서울국제민중회의

일시: 11월 7일(일)~10(수)

장소: 서강대

◆G20 대응 대토론회

일시: 10월 20일(수) 저녁 7시

장소: 추후공지

주최: G20대응민중행동

G20이 대체 뭉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990년대 신흥 경제국의 금융 위기가 선진국으로 변지는 것을 막기 위한 회의였죠. 반면,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2008년 경제 위기가 심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G8 선진국들은 주요 신흥국들을 끌어 들여 위기의 손실을 나눠가지려 했죠. 또한 국제경제 내 서열 변화가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중국이 빠진 G8은 공허하다는

것이죠. 남반구 몇몇 국가들이 포함됐으니 G20이 더 민주적인 국제 기구라 볼 수 있을까요? G20 참가국들을 살펴 보면, 여전히 주요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한국, 호주, 터키 등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은 G20에 참가하는데 반해, IMF 정책에 반대해 온 말레이시아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죠.



G20의 '국제 공조', 성적은?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의 국제 정책 공조 덕분에 "세계 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실제로 G20은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 공조에 거듭 실패해 왔어

요. G20은 2008년 11월에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개 회원국 중 17개국 정부가 최소 47개에 이르는 무역 규제 조치를 도입했죠.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각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재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세 피난처 규제는 논쟁 끝에 합의하지 못했고, 은행세 도입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죠!

이처럼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국제 공조는 어그러지고 뼈격대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신이 살아 남으려 하기 때문이죠.

노동자 · 서민의 피 빨아먹는 사악한 흡혈귀, G20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G20 정상들은 대기업들의 도산과 급격한 수요 감소를 막으려고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들과 기업들에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경제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노동자 · 서민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은행가들에게는 보너스까지 마구 지급해주었죠. 이 구제 정책 때문에 각 국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자, 지난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죠.

흡혈귀의 행동대장, IMF

G20 덕분에 IMF는 세계경제 감독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악명 높은 구제금융 채권자 노릇을 재개합니다. 최근 IMF는 긴축정책을 강조하면서 구제금융을 지원한 나라들에 교육 ·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를 요구했죠. 예를 들면, IMF는 헝가리에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퍼센트씩 삭감하라는 긴축 조치 조건을 제시했죠. 마이너스 12퍼센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라트비아에는 재정 지

출 추가 축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IMF는 라트비아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의 45퍼센트 낮추고 실업률을 20퍼센트 이상으로 올릴 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왔는데 그 결과는 부족하다는 거죠. 동시에 IMF는 그리스도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퍼센트나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죠.

돈 없는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구?

이명박 정부도 캐나다 G20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려 하죠.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각종 공공 요금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 5시간 만에 번복하긴 했지만 얼마 전 서울시가 지하철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긴축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니 그나마 코딱지만큼 투자하던 교육에도 지원을

삭감하고 등록금을 올리겠죠? 공공요금 인상, 인력감축, 공공 서비스 후퇴 등이 바로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과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긴축정책의 모습입니다. G20은 경제위기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악한 기구일 뿐인 거죠. G20 정상회의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명박은 이런 긴축정책들을 자신감 있게 밀어 붙일 겁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죠?

신간

G20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야 할 작은 책!

G20에 왜 반대해야 하는가

G20에 왜 반대해야 하는가

다함께 저음 값 2,000원 / 구입 문의 : 02-2271-2395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_^

하나, G20의 진실을 알리는 시리즈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붙인다.
 stu.alltogether.or.kr에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다!

둘, G20 포럼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다.

셋, 11월 7일-11월 11일 'G20 대응 민중행동'의 일정에 함께 모인다.

대학생다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10-6603-2536